

“청렴 기치 바탕...군민 행복·잘사는 군정 실현”

올해 새해설계

김철우 보성군수

복지·농업·관광·경제·안전 5대 군정 목표 제시 소외 없는 복지·다 함께 잘 사는 농업 등 구현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군민과 함께 보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불망 마부작침’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1년여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성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정 혼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도 3년 연속 1등급 달성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은 군민의 신뢰와 공직자들의 노력이 빛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2025년도 군정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소외 없는 복지와 든든한 행정

실현에 힘써 방침이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출생 기본 수당 신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한다. 또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보건의료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림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육성에 집중한다. 스마트 팜 확대와 청년 농업인 지원, 가루차가 공시설 도입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 개발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해양 관광과 수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통해 군민들에게 활력을 선사한다.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보성 열선루 축제와 국가유산 야행 같은 지역 축제를 확대하고, 생활 속 힐링 공간을 늘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치와 신규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보성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도 주력한다. 소상공인 용자금 지원과 보성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별교공용터미널 개선과 농공단지 개발로 주민 편의를 증

진한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과 상습 침수 예방 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꾀한다.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북학커뮤니티센터 준공,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황돛길 조성으로 도시숲 확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김철우 군수는 “2025년에도 군민들과 함께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성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며 “새해에도 군민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소회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장성군, 사계절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시동’

황룡강 지방정원·원터랜드 프로젝트 등 추진 박차 전담 관리 ‘황룡강사업소’ 출범...체계적 사업 진행

장성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장성 원터랜드 프로젝트’, ‘장성호 횡단 출렁다리 설치’,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황룡강은 봄의 ‘길동무 꽃길축제’와 가을의 ‘황룡강 가을꽃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봄·가을 이외의 방문객이 적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성군은 2025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6개 정원을 새롭게 조성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황룡강 상류 황미르랜드에는 물놀이시설과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황룡강 전담 관리 조직인 ‘황룡강사업소’를 출범해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추진을 강화한다.



장성군이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착수하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황룡강 가을꽃 축제 현장. (장성군 제공)

국내 최대 인공조림지인 축령산 편백숲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한층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서삼면 모암리 일대에 100억원을 투입해 산림휴양관, 아영시설, 풍욕장 등을 갖춘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관광 인프라 확대로 ‘천만 관광객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광양시 ‘공정·청렴 광양’ 실천 다짐

결의문 낭독·서약식 진행

광양시는 7일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청렴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렴을 약속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만큼 청렴 리더인 간부 공무원은 2025년 새해 청렴 행정 실천에 앞장설 것

을 다짐했으며 다른 공직자 또한 청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지난해 9월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신규 공직자 2명이 광양시 1천500여명 공직자를 대표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을 대내·외에 표명했다. 이날 광양시는 ‘공정하고 청렴한 광양’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각 부서에

서 청사 내 방송을 시청하고 자체적으로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 서약을 진행했다. 정인화 시장은 “새해에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청렴한 광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

郡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1대1 유족 지원반 편성

화순군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장례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전 부서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사고 당일) 군수 주재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구북구 화순군수는 사고당일과 다음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합동분향소와 희생자 장례식장을 순회 방문하며 유가족 위로·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공항 사고 현상에는 1대1 유족

지원반(6급 이상)을 편성해 2개 조 105명이 지원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 지원반 8개 책임부서와 2개 지원 부서를 편성해 조문, 발인, 화장, 장지까지 밀착 지원하고 있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국가예대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유가족의 행정 신고 지원을 위해 사망신고,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한 재산조회통합처리 신청 방법과 화순군 관내 법무사 현황 등을 작성해 유

족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군민의 안전과 사고보장을 위해 군에서 직접 가입한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사고발생 지역이 어디든지, 타 보험 가입 중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주민안전과장과 담당자가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기존 사망 시에는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화순군 특약 가입 사항인 사회재난, 폭발 화재 등의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청구 서류 간소화는 물론 1인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도출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풍어·안전 기원’ 장흥군, 새해 위판 초매식

무산김 위판 실적 전년비 1.6배 ↑...“득량만 수산물 판로 개척”

장흥군은 7일 “전날 정남진수산물위판장에서 장흥군수협 주관으로 2025년 초매식 및 풍어제를 개최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조업과 풍어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

승 장흥군의회 의장, 이성배 수협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수협의 올해 첫 위판에는 장흥 친환경 무산김과 득량만에서 포획한 낙지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장흥군에서 낙지는 약 72억원의 위판고를 달

성했다. 특히 무산김의 경우 2025년 1월 4일 현재 64억원의 위판고를 올려 전년 동기 대비 38억원으로 1.6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김성 군수는 “어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며 “장흥 무산김을 비롯한 득량만 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군, 주민등록·인감업무 ‘최우수 기관’

담양군은 “최근 2024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

담양군은 일과 시간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담양에 주민등록을 한 전업자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라좌수영 독제’ 여수 대표 브랜드 육성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 선정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에 지냈던 제사인 ‘전라좌수영 독제’가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로 선정된 ‘전라좌수영 독제’를 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 브랜드로 키운다. 특히 독제에 수군출정식과 시립국악단의 공연과 무용 등을 결합함으로써 역사문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연의 완성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화예술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라좌수영 독제’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공연을 10회 추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올해 진행되는 문화예술브랜드 사업 ‘전라좌수영 독제’는 제1부 독제례와 제2부 군점·수군출정식으로

진행되며, 이순신광장에서 막을 올린 전남관에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독제란 군중의 앞에 세우는 독기에 드리는 제사로 조선시대 군대 출병 때에 주로 지냈다. ‘독소(독제 장소)’ 또는 ‘독소묘’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행되며, 한양을 비롯한 전국의 병영과 수영이 있는 곳에 독소가 설치돼 있다. 제1부 독제례는 잔심배설과 사배, 전패, 간척무, 초헌, 공시무, 아헌, 창검무,

종헌, 음복·수조, 찰변두, 망예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어지는 제2부 ‘군점(군사적행사) 및 수군출정식’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최초로 출병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5만(순천 도호부, 낙안군, 보성군, 광양현, 흥양현), 5포(방담진, 사도진, 여도진, 발포진, 녹도진)의 장수, 수군들과 전라좌수영 본영에 모여 직접 군사를 점고(사열)하고, 무기 및 수군의 정신무장을 점검한 후 출정하는 과정을 담는다. /여수=김진선 기자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에 지낸 ‘전라좌수영 독제’ 시범 공연 모습. (여수시 제공)